

## 시스템적인 작업

이강소

수 세기에 걸친 서구의 근대과학과 철학의 영향은 지구상의 문명인들의 삶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오늘날과 같이 현대적인 세계를 이룩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론 인간의 의식은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부터 기계적인 것으로 변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두뇌를 위주로 하는 단조로운 사고체계로 바뀌어서, 자연 혹은 환경과의 괴리,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개념 갈등 등 되돌리기 어려운 난맥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버려, 이제 인간 스스로가 과거에 가졌던 자연 친화적이고 시스템적인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처해 있다. 이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세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듯 그렇게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알 수 없는 불가사의 한 것이다. 현대과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도 인간이 시스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 이상은 길고 긴 과제일 뿐이다.

예술은 현대에 이룰수록 인간 상호 간의 소통 수단으로 그 비중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예술이 인간 스스로에게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떠한 예술의 방법론과 그 성취가 한층 더 유익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시도와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작업을 해 오면서 줄 곳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과거 선조들의 수묵화나 서예들, 이 분야를 연마하거나 수련하지 않아서 일반인들과 다름없지만, 어떻게 해서 이 단순한 주제 혹은 기호들로서 우리들에게 이토록 마음에 떨림을 전해 올 수 있는가이다. 그들은 개인적인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현실적인 어떤 이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도 끊임없이 깊은 감동의 기운을 일으키는 것은 개념적으로 단조롭게 단정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다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작업들이 두뇌로서 이루어지는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수련과 수양을 통한 정신작용, 혹은 마음의 작용이 아닌 가 한다. 마음은 두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전체에 내재할 뿐 아니라 육체 밖의 통로와 메시지에도 내재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다. 그리고 선조들의 그 훌륭한 작업들의 성취는 그토록 긴 시간동안의 삶이 자연과 분화되지 않은 시스템적인 의식으로 살아온 초현대적이고도 지혜로운 여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모범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의 내 회화의 시도들은 어떻게 하면 두뇌로서만이 아닌 육체 전체 그리고 주변과 일체화된 상태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에 불과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수 없는 실패와 더불어 오랫동안의 미미한 성취, 그렇지만 계속해 보는 것이고 나의 조소 혹은 세라믹 작업 역시 육체를 통한 던지기는 수십 년을 던져 와도 그 변화

는 소소하지만 마음을 지닌 육체와 물의 신비한 변화에 그 놀이를 그칠 수가 없다. 설치작업 역시 프로세스적인 개념작업으로 넘겨 버리는 시각이 있는 것을 알지만 나는 주변의 신비한 변화의 관련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의 거시적인 물리학과 미시적인 물리학에서 우주는 한곳에서 태어난 것으로 모두가 이웃사촌이고 모든 사물은 물체가 아니라 빈 공간이고 파동일 뿐이란 견해들은 정말로 재미가 있다.